

사회

시민들 ‘폭주족 노이로제’

광주 지산동·산수동 일대 ... 오토바이·승용차 굉음 민원 폭주

문 못열고 잠 설치 ... 사고 위험까지

“못 참겠다” 경찰에 단속 불만·항의

“내 집 창문 한 번 마음대로 열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만성이 될 때도 됐지만 매년 이맘 때면 되면 정말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광주시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주민들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소음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 순간 소음이 75~80dB에 이르러 불륨을 높여도 텔레비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뿐더러 통화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 화를 내는 것으로 오해받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주민들은 동부경찰과 동구청에 수차례 신고도 해왔지만 단속을 비롯

신촌귀하는 이들의 출현에는 경찰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이 도로의 경우 S자형으로 된 급커브길인데다 밤 길이 어두워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 김모(34)씨는 “주말·휴일만 되면 밤 10시께 폭주족들이 레이싱을 해 시끄러운 굉음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괴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만만치 않아서 이들이 야간에 레이싱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등학교 등 청소년들로 경찰차가 조금만 접근해도 재빨리 달아나고 추격 시 사고 위험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평소 순찰중에도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운전자는 물론 폭주족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광주지역 5개 구청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200여건에 달한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폭주족들은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주족과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튜닝 차 등의 단골 질주 코스인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파크호텔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검 감찰부장 한승철씨 법무부 감찰관 이경재씨 법무부 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승철(46·17기)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조영근(15기)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전보 발령됐다.

광주 출신인 한승철 감찰부장은 광주·서울대를 졸업, 제네바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연남뉴스

산재환자 보험금은 눈먼 돈?

허위 입원 수역 쟁건 병원장 등 10명 적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해 환자 진료비를 청구해 수역원을 쟁건 산재 의료기관 4곳의 병원장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산재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광주 A병원 건물주 김모(57)씨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광주 B병원

한 곳당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2억9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쟁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환자들에 대한 심사가 서류로만 하게 돼 있는 점 등 현행 산재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요양 병원 등이 일체가 돼 있을 경우 이 같은 범죄는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교회 상조회 이사장 신도 돈 수억원 유용”

고소장 제출 ... 수사 착수

광주의 한 교회에서 불법으로 설립·운영해오던 교회 협동상조회 이사장 신도들이 맡겨둔 수억원대의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지검과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모 교회 신도들은 최근 이 교회 협동상조회 A이사장(장모)이 수년간 자신들이 예치한 6억3천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 15년간 협동상조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사용한 돈의 출처와 재산처분 내역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교회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교회 측은 A이사장과 관련, 피해 신도들을 상대로 ‘이사장 측이 일정 금액 이상 상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으려 다니는 등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도 B씨는 “교회 측이 적극 나서서 공정한 조사를 해주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본보의 인터넷 뉴스에 “말하고 싶지 않다. 다음에 얘기 하자. 목사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보라”며 전화를 끊었고, 해당 교회 목사도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 하자”며 답을 피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신도들은 고소장에서 자본금 사정 등을 이유로 불법 설립된 협동상조회가 A이사장의 유용 등으로 인해 예치금이 거의 바닥난 지난 5월 6일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신도는 총 162명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32명에 이른다.

또 1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신도 가운데 상당수는 60대 이상이며, 이 중에는 폐지 수집 등을 통해 생계를 이

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 15년간 협동상조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사용한 돈의 출처와 재산처분 내역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교회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교회 측은 A이사장과 관련, 피해 신도들을 상대로 ‘이사장 측이 일정 금액 이상 상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으려 다니는 등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도 B씨는 “교회 측이 적극 나서서 공정한 조사를 해주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본보의 인터넷 뉴스에 “말하고 싶지 않다. 다음에 얘기 하자. 목사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보라”며 전화를 끊었고, 해당 교회 목사도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 하자”며 답을 피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80만원 갈취 10대 7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9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빼앗은 서모(16)양 등 2명을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한 김모(15)군 등 5명을 불법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양 등은 지난달 4일 인터넷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A

(13), B(14)양에게 “같이 살자”며 자선들이 지내고 있던 모텔로 유인, 인터넷 채팅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양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군 등은 지난달 4일 A, B양을 성폭행하고 “돈을 벌어 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0대 여성 승용차 트렁크서 숨진 채 발견

3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40분께 북구 월출동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박모(여·35)씨가 자신의 로체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씨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었고, 시신은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 또 박씨의 소지품과 차량 키, 디스크 진통제 등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씨는 지난 달 25일 출근한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가 직장에서 판매 대금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899) 김장동



공장서 혼자 야근 50대 숨져

9일 새벽 4시께 곡성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설비부서 직원 안모(4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분회 위원장을 지낸 김씨는 이날 혼자서 야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나 유용자 - 포장마차 자리 내보”

“자신이 국가 유공자라는 것을 내세워 포장마차 업주들을 협박해 자리를 빼앗은 50대 남성 등 일가족 4명이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L(55)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서구 치평동 모 대형할인매장 앞 공터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K(여·52)씨의 영업장소를 강제로 빼앗는 등 최근까지 3곳의 포장마차 자리를 빼앗은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카드를 보여주며 “내가 속한 보훈단체에서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검만 주려고 했을 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지목, L씨 등을 검거.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호온돌 특가천

행사기간 : 9월11일(금)~15일(일)까지 단3일간

장소 : 광주신세계 지하 1층 매장 전권 ☎ 10021360-1982

On-dol-nera

아이엘리시아

목욕·프러미엄 뷰티

아이엘리시아

NAVER 인기 검색어 1위

☎ 671-1199